

소중한 내 차를 망치는 나쁜 운전 습관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잘 알지 못해서, 혹은 습관적으로 자동차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 PLAY KIA(play.kia.com)가 내 차에 독이 되는 운전 습관을 소개했다.



자동차를 놀라게 하는 3급



3급이란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을 뜻하는데, 이런 급격한 조작은 서서히 가속하거나 감속할 때보다 연료 소모가 훨씬 클 뿐 아니라 엔진 수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출발 후 약 15마일/h까지는 천천히 가속하는 습관을 들이면 연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엔진 수명까지 늘릴 수 있다.

급제동 역시 내 차를 망치는 나쁜 방법 중 하나다.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습관에 의한 잦은 급제동은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를 빨리 닳게 할 뿐만 아니라 디스크 변형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후미 추돌 사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급제동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뜯지 않는 새 차의 비닐과 스티커



오랫동안 새 차 기분을 내고 싶거나 차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신차에 붙어 있는 비닐을 벗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비닐과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는 행동은 운전자와 차량에 모두 나쁜 영향을 준다. 시트 비닐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발생한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게 된다. 또 비닐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는 전자 기능에 영향을 끼쳐 오작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

신차에 붙어 있는 외관의 스폰지와 스티커 등도 떼는 것이 좋다. 스폰지의 접착면이 오래되면 늘어붙어 쉽게 떼어지지 않을뿐더러, 도색의 변색을 유발해 오히려 외관을 망칠 수 있다.

엔진룸 고압 세차



차를 구석구석 세차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엔진룸 세차다. 엔진 내부 각 부품은 기본적으로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 세차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압수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고압수의 센 압력으로 부품 연결부위가 손상될 수 있고 전기회로나 에어 덕트 등에 물이 유입되면 치명적인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엔진룸 내부를 청소할 때는 형광과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 직접 손으로 닦는 방식으로 청소하는 것이 좋다.

장기 운행 중단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수록 차를 오래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자동차를 오래 세워 두기만 하면 오히려 크고 작은 고장을 일으키기 쉽다. 자동차를 자주 운행하지 않으면 엔진 오일 안의 오일이 가라앉아 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고 변속기는 물론 각종 부품이 뒹뒹해지거나 부식될 수 있다. 또 너무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는 난감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 만약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소 주 1회 이상은 시동을 걸어 워밍업하는 게 좋다.

엔진오일 관리 소홀



엔진오일은 엔진 부품이 마모되지 않도록 돕고 냉각 작용 및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의 밀봉 작용을 하는 등 엔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규격에 맞지 않는 엔진오일을 사용하면 오히려 엔진 성능이 떨어지거나 결함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너무 잦은 엔진오일 교체도 좋지 않다. 엔진오일을 너무 자주 교체하면 오일이 최적 효율을 발휘하기도 전에 다시 새로운 오일로 교체돼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취급 설명서에 명시된 주기를 지키는 것이 좋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업소명(한글): _____

(영문): _____

업소명(영문):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

